

전남 무농약·유기농 인증 면적 전국의 절반

한농연 발표, 지난해 7만5천ha... 도내 전체 친환경 인증면적의 92%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의 50%(무농약·유기농), 도내 전체 경지면적의 2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와 시장전망'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전남지역 친환경 재배 인증 면적은 총 8만2309ha로 전국(16만4467ha)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재배면적은 7만5948ha로 도내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의 92.2%나 돼 다른 도(40~50% 수준)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남도가 오는 2015년 말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더라도 친환경농업 생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농업·농촌·농업을 아우르는 '3농 정책'

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했다. 그 결과 인증 면적은 2004년보다 20배(유기농 22배·무농약 67배)가 늘고 농가 수는 16배 늘었다. 지난해 수도권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도 50% 이상 선점했다.

또한 2014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45%까지 확대할 목표로 논 잡초제거용 새끼우렁이 공급 확대를 통한 무제초제농업 실현, 농업용 미생물 공급으로 저비

용 유기농업 조기 정착 등 전남만의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는 2015년 이전에 저농약은 모두 무농약으로 상향시키고 무농약은 유기농으로 올려 부가가치를 높여나감으로써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2년 현재 3조809억원에 달해 전체 농산물 시장의 9% 정도를 차지하는 등 틈새시장에서 점차 주류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급식 확대, 유기농공식품 개발 등 유통 활성화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거래액의 약 20%인 7조4749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농산물 공급과 더불어 환경을 지켜나간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친환경농업을 유기농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자 노트

면민의 날이 지방의원 축제장인가

요즘 일선 지자체가 '면민의 날' 행사로 북적 거리고 있다.

올해 장흥군 산하 10개 읍·면 가운데 이달에만 8개 읍·면에서 행사가 열렸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상당수 마을이 존폐 기로에 놓여 있지만 면민의 날만은 계속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초창기에는 마을대항 각종 체육대회 행태로 열렸지만,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노인 위안 잔치로 전락해 가고 있다.

비록 인구 감소로 참여 인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출향 향우들의 협찬과 주민들의 심사일 반 모금 열기로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농어촌 인구가 최고 절정을 이루었던 지난 60·70년대는 면민의 날 행사가 없었다.

장흥지역의 경우 면민의 날은 지자체가 시행된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개최되고 있다.

각 면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이 뽐히면서 면민의 날이 열리고 날로 면 단위 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어찌보면 면민의 날 행사는 주민

들의 축제의 한마당이 아닌 이들 선출직인 단체장, 도·군의원들의 축사나 읍고 얼굴 익히는 정치 선전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반해 지난 1971년부터 조례를 근거로 열리고 있는 '장흥군민의 날' 겸 '보림문화제' 행사는 군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2년 격년제로 치러지는 고장의 축제 한마당인 '고싸움



김용기
중부추진본부장

시연', '민속공연', 읍·면 대학 체육대회 등 군민의 날과 문화제 행사에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장흥군은 최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오는 5월1일 열 예정이었던 제43회 '장흥군민의 날'과 '보림 문화제'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실내 기념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사실상 개최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아니다. 날로 농어촌은 인구 감소로 황폐화로 텅 빈 유령의 집이 늘어만 가고 있다. 선출직인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면민의 날' 활성화에 앞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꺼져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일이 급선무다.

/장흥=kykim@kwangju.co.kr

물로켓 쇼 보고... F1모형차 만들고...

목포서 전남과학축전

목포 삼학도 일대에서 27일부터 이틀간 '전남과학축전'이 열린다.

이 행사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경북·제주 등 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4만여명이 참여한다. '함께 만드는 행복한 미래, 도약하는 전남과학!'이란 주제로 한 이번 축전은 과학의 싹(과학체험마당), 과학의 꽃(어울림마당), 과학의 열매

(과학탐구마당) 등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이번 축전에는 전남 과학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물 로켓 쇼', 'F1 모형 자동차 만들기', 요트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작은 과학경진대회, 야간 별자리 관측체험, 생물 표본과 납도 들꽃사진 전시회, 과학탐구활동 보고서 쓰기 대회, 전국과학교사 교류회 등도 열린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광양시, '섬진강시' 상표 등록

청정 강 활용 농축수산물 선점 기대

광양시가 특허청에 '섬진강시' 상표 등록을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특허청에 '섬진강시'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1년6개월 만에 등록이 완료됐으며, 앞으로 2023년까지 10년간 상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후 갱신도 가능하다.

이번 상표 등록은 각 자치단체별로 청정 섬진강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특산물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동서 통합 자재로 섬진강 권역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섬진강이 브랜드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 받고 있다.

시는 향후 '섬진강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돼 단체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남해안 남중권역 지자체 협력 증진사업에 '섬진강시' 상표를 공동 사용하

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연계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섬진강을 활용해 특허청에 '광양섬진강제철'을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으로 등록(제44-000018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인이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에 '광양 섬진강 매화'가 선정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탈북미녀와 함께 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김동버라이어티쇼!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여수박람회장 재개장

최근 재개장한 여수세계박람회장(여수엑스포해양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25일 디지털갤러리 앞 폭포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엑스포해양공원은 현재 이쿠아플라넷, 스카이다이브, 엑스포디지털갤러리가 운영중이며, 빅은 다음달 11일부터 운영한다.

(여수시 제공)

김충석 여수시장 공약이행률 80% 넘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조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조사한 김충석 여수시장의 공약이행률이 81.8%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민선 5기 기초단체장 평균공약 이행률은 43.16%에 불과했다.

여수시는 25일 "지난 22일 시 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김 시장의 104개 공약사

업 중 완료가 37건, 정상추진 62건, 부진사업 4건, 기타 종료 사업 1건으로, 99건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보고회에서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69억9000만원 절감▲1만5000㎡ 크루즈 집안시설 등 해상교통망·접안시설 확충 ▲전라선 여수~순천 복선전철화 사업 조기 완공 ▲박람회장 주변 유희지 녹화 등 37

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분기 주요 성과로 ▲기후변화대응 중장기비전수립 등 3개의 사업 추가 완료 ▲2013년도 지방교부세 199억원 증액 확보(2012년 대비 8.1% 증가) ▲2012 전라남도 옥외광고업 최우수기관 선정 등을 꼽았다. 한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수시는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여수=김청화기자 chkim@

맨손 고기잡기 체험

내달 5일 완도 달도해변서

완도군이 장보고축제 기간인 다음달 5일 군외면 달도 테마공원 해변에서 '맨손 고기잡이 체험' 행사를 연다.

달도 마을 해변은 매년 봄에 송어, 농어, 광어 등 자연산 활어를 맨손으로 잡고 바지락 캐기, 게 잡기 등 가족 단위 체험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체험 참가자는 참가비와 고기를 담을 망태기, 장갑만 준비하면 된다.

맨손으로 잡은 고기는 즉석에서 시식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이 회를 떠준다. 달도 해변에는 정유제란 당시 총무공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이 불을 때 마시고 식사병을 고쳤다는 '호남대장군 약샘'이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새 얼굴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펼치겠다"

최 삼 동 무안경찰서장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주요범죄의 맞춤형 예방책을 실시하고 인권보호, 치안 인프라 확충,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 시스템 등 지역맞춤형 치안시책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최삼동(57) 총경이 제66대 무안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최 서장은 무안군 일로읍 출신으로 문태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79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최 서장은 "고향에 근무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

다"며 "고향 발전을 위해 4대역 등 범죄 척결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화하고 따뜻한 인간미로 내외부 신임이 두텁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최 서장은 수사·경비·교육·생활안전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박경숙(54)씨의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